

# GMP 귀국 보고서

## 인적사항

성명	이경호	학번	
이메일	Lkh0424@korea.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MSSUM (국가) 미 국
기 간	2020.12~2021.12 [귀국일: 2022년 1월 6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교학처장 귀하

2022년 2월 일

신청인 : 이경호 (인)

##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제가 유학을 준비하던 2020년은 코로나가 전세계를 덮쳤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의 소식을 뉴스로 보고 지인들을 통해 들어도 직접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로 표시되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자수 등에 걱정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UIUC를 비롯해서 UC San Diego나 Georgetown도 고민하였었는데, 위 학교들도 좋은 학교이고, 한인들도 많이 살고 교육여건들도 좋았으나, 제 업무와 좀더 관련이 있는 전공(도시계획)을 배울 수 있고, 인구가 적어 코로나 발생자수가 좀 더 적고, 렌트비와 등록금이 저렴한 UIUC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삼페인은 평균온도는 서울에 비해 1도 정도 낮은 편이고, 제가 있을 때는 1~2월 정도까지는 추운 편이었으나 3월부터는 날씨가 풀렸습니다. 미국생활의 대부분을 자가용을 이용해 다니기 때문에 밖에서는 추운지를 몰랐고, 밤에는 전기장판을 쓰긴 했습니다. 우리나라 온돌과 달리 히터가 나오는 난방시스템(HVAC)이라 초기에는 적응이 필요한데, 피부가 건조한 편이라 히터가 많이 나올 때는 로션을 많이 바르고 보습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겨울 빼고는 공기도 좋고 살기 좋았고, 하늘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일리노이는 미국 중부에 위치하고, 주변에 산이 거의 없는 평야지대로 미국에서 콩이 가장 많이 나는 주이기도 합니다. 겨울에 도착하시면 시카고에서 내려오시면서 일리노이의 넓은 경작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작지가 여름에는 옥수수과 콩으로 뒤덮이고, 여름밤에 반딧불이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삼페인은 시카고에서 125마일 정도 남쪽에 위치하며 차로 2시간 남짓 걸립니다. 삼페인 카운티는 인구가 20만, 삼페인 시티는 8만, 어바나 시티는 4만 정도로 전형적인 캠퍼스 타운이며, UIUC 학생들과 교수님, 학교 직원들과 관련 지원시설들로 이루어진 중소도시입니다. 예전부터 UIUC는 한국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였고,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도시계획과는 같이 간 KDI 학생들(저까지 3명) 외에도 석사학생 2명, 박사학생 1명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 학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Greatschool이나 niche 사이트에서 삼페인(District 4)은 좋은 평점을 받고 있지 못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San Diego나 Georgetown의 Fairfax 지역은 9~10점 거의 만점을 받는 초등학교들이 많은데, 삼페인은 6~7점이 최고점수이고, 3~4점을 받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점이 고민이었는데, 먼저 오셨던 KDI 분들이 아이들 학교에 만족하셔서 보는 것을 보고, 저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아이 2명을 한 명은 Bottenfield 초등학교에 보냈고, 한 명은 Next Generation School에 보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시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서 두 학교에 모두 만족했습니다. Next Generation School은 사립학교인데 입학 전 아이들부터 중학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5,000불 정도의 등록금을 냈고, 코로나로 공립 학교에서 단축 수업을 할 때도 정상수업을 했었습니다. 체육 수업도 매일매일 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삼페인 지역은 District 4라는 지역 교육청 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학교 배정 시에 District 4는 1~5지망을 받되 주로 집과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려고 하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2명을 같은 학교에 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정하실 때 주변 학교를 보시고 학교에서 가까운 곳을 정하시는 것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저는 Gentry Square 아파트에 살았고, 저희 집에서 Roberson과 Bottenfield가 비슷한 거리였는데, Bottenfield를 1지망으로 써서 그런지 Bottenfield가 되었습니다.

삼페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렴한 주거비용입니다. 같이 간 KDI분들이나 현지에서 만난 유학생, 주재원분들의 렌트비를 보면 2bed에 1,200~1,500 정도 선에서 집을 구하실 수 있고, 가장 저렴한 곳은 2bed에 700불인 곳도 있습니다. 보통 한국분들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한국의 아파트와 달리 2~3층의 주택형태이고, 타운하우스 형태로 1~2층을 사용하면서 옆집만 붙어있어서 층간 소음 걱정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좋은 것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잔 고장은 모두 고쳐주고, 눈을 치우거나 잔디를 깎을 필요가 없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할 것이 집과 애들 학교, 애들이나 본인의 예방접종,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저는 다행히 KDI 선배분의 차를 받으면서 짐도 무빙세일로 받아서 초기 정착 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다른 분으로부터 받기가 어려울 경우 삼페인 내 혼다 대리점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시카고나 블루밍턴의 Carmax(중고차 대리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차량을 처분할 때 Carmax를 이용하였는데 금액도 괜찮게 쳐주고, 믿을만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은행은 Chase 쓰시는 분도 있고, 저는 PNC Bank 썼습니다. PNC 은행에서 학생계좌로 가입하면 6년간 유지비용 없이 계좌를 쓸 수 있고,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PNC은행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PNC 은행에서 체크 카드를 만들어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할 때 주로 이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MSSUM 과정은 총 32학점(4학점 \* 8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봄학기에 4과목, 가을학기에 4과목을 들었습니다. 또한, 토플이 103점인가를 넘지 않으면 영어 ESL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ESL 수업을 듣기 전에 말하기와 쓰기 시험(EPT)을 보는데, 말하기는 토플 말하기영역 19점을 넘으면 안 봐도 됩니다. 이 시험에 따라 등급이 나오는데 최고 등급은 ESL 수업이 waiver되고, 그 밑에 등급은 1학기, 그 아래 등급은 2학기동안 ESL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ESL 수업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매학기 4과목씩 듣느라 바쁜 편이므로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셔서 높은 등급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수업은 KDI수업보다 힘들었지만 보람되었고 미국의 수업방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영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니 속도가 훨씬 빠르고, 인도, 중국 등 학생들이 섞여 있다 보니 학생들 이야기도 알아듣기 힘들어 수업을 따

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4과목씩 듣다 보니 리딩이나 숙제가 많고, 리딩을 숙지하고 와야 수업이 가능한 과목들도 있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온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범수 교수님이나 Marc, Mary, Dustin 교수님들께서 저희를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전반적인 문화이기도 한데,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주고 다양한 시각에 대하여 존중하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학생이 열정적으로 과제나 시험에 임하였을 때 교수님이 답을 미리 정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열심히 한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방식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MSSUM 코스는 학기 당 4과목을 들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계절학기가 없어서 약 100일간(5월초~8월말)의 방학이 있고, 논문이나 Capstone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공 필수 과목이 1~2개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6~7개 과목은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다른 학과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500대 이상 수업을 2개 이상은 들어야 합니다.) 저는 UIUC가 미국 전체 1등인 도서관학과나 토목과의 수업을 들으려고 알아 보았지만 수강인원이 꼭 차거나 시간이 안 맞아서 수강하지는 않았습디만, 저보다 전에 오셨던 KDI 분은 경영대 수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2021 봄학기 (온라인 수업) -

- ① Economy (505) : 지역 경제, 특히 일리노이주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수업입니다. Marc 교수님이 강의하셨는데, 수업강도는 가장 썩지만 봄학기 수업 중에 저희를 가장 많이 배려해주셨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시고 수업 자료 중에 한국어로 번역된 자료도 직접 찾아서 알려주셨습니다. 교수님이 아주 열정적이었고, 수업시간에 참여를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편입니다. 리딩이 많은 편이고 시험이나 숙제는 없고, 에세이를 3번 정도 냈고 발표도 1~2회 했습니다.
- ② Theory of Urban Planning (504): 도시계획의 역사를 다루면서 기원 전 인류 초기 문명에 대해서도 다루고, 현재의 도시문제까지 폭넓게 다루는 수업입니다. 막달레나 교수님이 강의하셨는데, 수업은 리딩이 있긴 했지만 편한 편이었습니다. 조별 발표도 하고, podcast 제작 등 다양한 작업도 해볼 수 있었고, 칠레 출신 교수님이셔서 유럽이나 미국의 학계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남반구의 이야기, 인종차별이나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해주셨습니다.
- ③ Neighborhood Analysis (494): Andrew 교수님이신데, 프로그래밍 언어인 R에 대하여 배우는 수업입니다. 숙제도 없고, 마지막에 기말 Report만 내면 되는 수업이라 편하긴 한데 R을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기말 Report를 하는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R이 어느정도 익숙하냐에 따라 수업강도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④ Built & Environment (460): 안한나 교수님이 한국 교포이신데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시고, 한국말로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습디만. 이 수업은 SEDAC이라는 대학

내 연구단체의 기술자분들이 자신의 맡은 분야를 나누어 강의하는 수업입니다. 주제는 건물의 에너지를 효율화하기 위해 전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것부터 해서 창문, 단열재, 바깥의 조경까지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수업시간에 e-Quest라는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처음에는 좀 생소하지만 하다보면 할만합니다. 그리고 매주 숙제가 나오는데, 수업을 열심히 듣다보면 SEDAC 분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일한 대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1 가을학기(오프라인) -

- ① Transportation (460): 교통과 토지이용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으로 이범수 교수님께서 강의하셨습니다. 숙제가 4번 나오고, 발표 1번, 프로젝트 제출 및 발표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숙제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편은 아니시나, 최종 학점은 잘 주신 것 같습니다.
- ② Advanced Data Science (494): Fang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과목인데, 이것도 프로그래밍 언어인 R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봄학기 때 배운 R 수업과는 달리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초를 배우기 쉽고, 숙제가 매주 나오지만 그 주 수업만 잘 들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Fang 교수님이 중국분이신데 한국에서 공부하셨던 경험도 있으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 ③ State Finance (410): Mary 교수님 수업인데, 미국의 세금제도를 주로 다룹니다. 내용도 재미있고 조별 토론도 많이 하고, 중간기말시험이나 발표 등등 할 것들은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은데 점수를 후하게 주셔서 큰 부담없이 할 수 있었던 과목입니다.
- ④ Plan Making (510): Dustin 교수님 수업인데, 기존 수업이랑은 완전 다른 방식의 수업입니다.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지역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주입니다. 이번학기에는 Urbana City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을 조별로 나누고 해당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수업 부담은 적은데,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영어가 부족한 저로서는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 주로 몸으로 배우는 일을 많이 하고 회의나 행사는 무조건 참여하려고 하였습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UIUC는 대학원 기숙사가 있기는 한데, 낡은 편이고 off campus 렌트 가격이 싸기 때문에 기숙사를 활용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한국 분들은 주로 Regency 그룹이 운영하는 3아파트 (Legend, Gentry, Winsor west)와 Baytown, Winfield에 주로 머무시는 편입니다. Legend는 새 아파트이고, 골프 코스가 있는 점이 장점이나 조금 외진 편입니다. Gentry는 애들 학교 보내기에는 위치가 좋은 편이나 건물은 조금 낡은 편이고, Winsor west는 위치는 괜찮고 사람들 평은 좋은 편인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Baytown은 북쪽의 상권이 몰려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Costco, Walmart, Target 등 장을 보기 편하고 음식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 학교와는 거리가 있어 통학거리가 조금 길고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Winfield는 렌트비가 700불대로 가장 싸고 위치

도 캐리뷰지나 박스틀을 보내기 가까워 좋은 편입니다. 아마 건물은 가장 오래된 편일텐데, 가성비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학교 주변에 한국음식점이 많고, 한국식 짜장면, 짬뽕을 파는 중국음식점도 있습니다. 밖에서도 가끔 사먹지만 주로 집에서 많이 해먹게 되는데 Aldi가 식재료가 싸며, Amko나 Green onion이 한국 식자재나 한국 식품을 팔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살 수 있습니다.

##### 5.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지나고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샴페인은 조용한 소도시이다 보니 코로나에서도 한 발짝 비껴있었던 것 같고,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라 그런지 대학교나 아이들 학교에서도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였습니다.

수업이 녹녹치 않아서 학기 중에는 수업에 집중하였지만 주말에 주변의 시카고나 인디애나 폴리스, 위스콘신 등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링컨의 생가가 위치한 일리노이에서 1년간 머물렀던 것이 즐거웠던 추억이었습니다. 후배분들도 행복하고 보람된 외국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 GMP 귀국 보고서

## 인적사항

성명	김경재	학번	
이메일	<a href="mailto:gods0409@gmail.com">gods0409@gmail.com</a>		

대학원명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MSSUM (국가) 미국
기간	2021.1~2021.12 [귀국일: 2021년 12월 2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교학처장 귀하

2021년 2월 3일

신청인 : \_\_\_\_\_ 김경재 (인)



###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기후, 지리적위치, 생활관련사항, 자녀학교)

UIUC가 위치한 샴페인-어바나(대학교가 샴페인시와 어바나시의 경계에 위치)는 지리적으로는 미국 중부지역이지만 동부에 가까운 위치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폭포까지는 오전에 출발하면 저녁전에 도착할 수 있고 디트로이트까지 4시간, 몬트리올까지 10시간으로 넓은 미국의 면적을 고려 했을때 여행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뉴욕까지도 충분히 여행이 가능한 거리이다. 일리노이주는 여름은 상대적으로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이고 겨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추운 기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있었던 1년동안은 서울과 기후가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KDI와 연계되어있는 과정은 MSSUM(Master of Science in Sustainable Urban Management)로 특화된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대체로 도시계획 석사과정인 MUP(Master of Urban Planning)과 듣는 과목에서 거의 같다.

대부분의 한국학생들은 미국에서 생활해 본적이 없는 경우 SSN(Social Security Number)가 없기 때문에 정식면허증이 아닌 임시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경우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교육기간만 고려하면 I-20가 1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MSSUM담당인 어드바이저에게 부탁해서 미리 I-20를 1년이상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년동안 일리노이주 내에서 운전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3개월후 국제면허증의 운전가능기간이 만료되면 주밖으로 운전이 안되기 때문에 여름방학기간 동안 여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다. 실제 1년전에 오신분은 I-20를 1년 미만으로 받는 바람에 방학때에도 일리노이주 밖으로 여행을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초등학교 진학문제이다. Greatschool.org 기준으로 샴페인 어바나 지역에는 총 10개의 대표적인 학교가 있다. 가장 높은 등급은 6등급으로 Bottenfield, Carrie Busey가 있다. 5등급(South Side), 4등급(Kenwood, Barkstall), 3등급(Roberson, Stratton), 2등급(International Prep), 1등급(Gardenhill) 등으로 나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이 높다. 샴페인 어바나는 District 4(교육청)에 속하는데 현지에 가기전에 미리 교육청을 통하여 공립학교에 지원을 하거나 사립학교를 보내는 경우 해당학교에 신청해야 한다. 학교는 자동배정이 아니라 교육청에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신청하면 그 안에서 결정을 해준다고 들었다. 다만, 해당학교에 자리가 없으면 원하는 학교를 못 갈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스쿨버스 차량운영(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정인원을 10명 이내로 운영)등의 문제로 인하여 근거리 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된다. 짧은 1년이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사립학교인 넥스트제너레이션(Next Generation)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한국인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인데 등록금이 월 1,000불 정도 하며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전에 일찌감치 지원하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 저는 아이들을 Stratton Academy of the Arts라는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ESL을 담당하는 선생님 중에 한국분이 2명이었는데 워낙 열정적으로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신경을 잘 써줘서 좋았고 담임선생님도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두번째 학기에는 큰아이가 5학년이 되면서 Gift Program(영재프로그램)에 운 좋게 들어갔다. 학부모들이라면 다들 선망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우리 아이는 한국에서 특별

히 영어회화 등을 준비하고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으로 운영하는 영재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 영어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단점이 있었다. 차라리 딸아이처럼 일반수업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학교수준보다는 어떠한 교사를 만나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 ESL을 담당했던 Susan Kim은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이들을 챙겨줬고 1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했다. Ms. Burton은 2년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 어떠한 교사보다도 뛰어났으며 위대한 교육자 중에 한명이 될 거라고 의심치 않는다. 이분은 워낙 열정적으로 수업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딸아가 학년이 올라가는 두번째 학기에도 미리 얘기해서 큰 아이 담임에게 배정받을 수 있었다. 교장선생님은 BTS의 열광적인 팬이었는데 수백만원짜리 티켓을 사고 Thanksgiving 때 비행기를 타고 LA를 방문해서 ARMY임을 입증했다. 교장은 고맙게도 학기가 끝나서 마지막 일주일동안 "We will miss you, Taehoon and Rina."라는 전광판 문구를 게재해서 우리집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을 알렸다. 특히 큰아들은 학교수업 마지막날 떠난다는 아쉬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다만, 상대적으로 중부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샴페인을 골랐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학기 초반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였고 정상화가 되었던 2달후에도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서 수업을 하였기 때문에 당초에 생각했던 만큼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이들에게는 과외를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결국 금전적인 부담으로 이어졌다. 결국 사립학교 등록금만큼 비용지출을 했기 때문에 학교 선택에 있어서 코로나의 확산여부 등을 감안하여 공립학교를 선택할지 사립학교를 선택할지 정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영어를 향상시키고 싶은 부모들은 사립학교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물론 두번째 학기에는 초등학교, 대학교 모두 정상 수업을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다.

## 2.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일리노이 주립대는 공대가 수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도서관학과는 미국 1위이며, 컴퓨터공학 역시 미국내 최고수준으로 많은 졸업생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글로벌기업에 취업한다. 한국에서는 도시계획이 공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리노이 주립대의 경우 건축학과와 같이 Fine Arts로 분류된다. 도시계획학과(Urban Planning) 또한 매우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의도 높다. KDI에서 공부하면서 봄학기에 Dean's List에 올라서 미국에 가서도 어느정도 학업에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 와서 수업을 들어보니 따라가기가 바쁘게 정신없이 첫 학기를 보냈다. KDI에서 1년 공부를 했지만 대학교를 졸업한지 15년이 넘어서 갑자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습관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닌 듯 하다. 게다가 영어로 글을 적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첫 학기에 수강했던 4과목 중 2과목(GIS for planners, Energy and the Built Environments)은 도시계획이나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활용법을 익히는 수업이었다. 이 중에서 GIS는 도시계획분야의 활용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배워 두면 좋고 다른 과목을 듣더라도 프로그램을 쓸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배우는 것을 추천해드린다. 프로그램 활용하는 수업은 아시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으로 매주 Lab관련 숙제를 제출해야 해서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학점을 잘 받긴 했지만 한학기가 끝나고 나서 보니 학점보다는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2학기에는 강의위주의 수업위주로 들었는데 중간, 기말고사를 치는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시험준비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학기에는 A-를 받는 과목도 있었지만 두번째 학기에는 첫 학기보다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었음에도 전과목에서 A를 받아서 GPA에서 4.0/4.0 만점을 받았다. 수업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KDI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차이점은 대학 졸업 후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부분과 연관된 내용을 학교에서 미리 맛보기로 배운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인 듯하다.

### 3.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KDI와 연계 되어있는 MSSUM과정은 총 8과목을 수강해야 하는데 봄학기 4과목, 가을학기 4과목을 듣게 됩니다. 미국의 일부학교의 경우 학기시작전 Intensive 과정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UIUC는 학기시작에 맞추어 조금 일찍 입학하면 됩니다.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일반 대학원생들과 다른 일정으로 수강신청을 하기 때문에 Academic Advisor(Professor Dustin Allred)와 협의하면 되고 해당 수강과목의 인원이 다 찬 경우라도 얘기를 해서 수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지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이론을 알고 싶어서 첫 학기에 Economic Development Theory를 수강하고자 했는데 수강인원을 초과했지만 아카데믹 어드바이저가 도와줘서 같이 갔던 KDI 학생 2명과 같이 수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MSSUM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논문이나 캡스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봄학과와 가을학기에 강의만 들어도 되기 때문에 학기중에만 공부에 신경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논문 쓰는 것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는 매력적인 과정입니다.

정규과목 이외에는 토플성적에 따라서 ESL을 면제를 받거나 1~2과목을 들으면 됩니다. 토플점수는 최소 지원점수 Minimum(79점)을 충족하는 경우 조건부 입학으로 ESL을 1~2개 수강하여야 하며 Full Status(103점)을 충족시 영어수업인 ESL이 면제가 된다. 저는 KDI에서 Academic Writing을 듣지 않아서 ESL을 들으면서 Term Paper 쓸 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미 한국에서 라이팅 수업을 들으셨다면 Business 관련 영어를 수강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

### 4.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UIUC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렌트와 물가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Winfield Village의 경우 500불~800불 정도의 비용으로 2베드 아파트를 구할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스, 전기 등의 유틸리티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상당수는 대학생 커플들이 많습니다. 다른 캠퍼스 인근의 아파트도 비슷한 가격수준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애들학교와 생활편의 등의 이유로 오프캠퍼스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프캠퍼

스라고 해도 작은 대학도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까지 10분에서 15분 이내에 어느 지역이든 갈수 있다. 제가 살았던 아파트는 베이타운 아파트(Baytowne APT) 였는데 상업지구내 위치하고 2베드 기준으로 1,000불이 조금 넘었다. 아름다운 호수를 거닐면서 산책을 할 수가 있어서 1년간 매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였다. 은퇴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전원적인 분위기로 만든 아파트로 대부분의 집들이 아름다운 호수뷰를 가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 옆건물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Sam's club으로 월마트와 비슷한 대형마트가 있었고 길 건너편에는 베스트바이(하이마트와 유사), 달러트리(다이소 비슷), 한블럭 더 걸어가면 마이어(월마트보다 조금더 비싼 마트)가 있다. 그 외 가까운 식당인 레드랩스터, 칠리스, 햄버거 체인 파이브가이까지는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다. 다운타운에 위치하여 도보권에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장점과 아파트와 외부 경계 전체에 펜스가 쳐져 있어서 단지내를 가족과 산책하더라도 안전하고 정문 Gatehouse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사회 전체가 총기문제로 치안에 대한 불안을 가질 수 있는데 아파트를 계약할 때 조심해야 할 것(미국 전체의 아파트가 해당)은 기존에 가족들이 거주하다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인데 대학생이면 상관없지만 자녀들 둔 부모의 경우 계약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일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수요가 많은 가을학기에 임대를 선호하여 처음에는 1년 단위의 계약이 아닌 다음해 9월까지 계약 후 다시 1년간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12월에 들어가는 사람은 계약을 넘겨받는 경우 많은데 집을 빼는 것도 감안하여야 해서 가급적 12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Sub-lease형태가 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정식으로 아파트 계약을 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자녀동반 가족의 경우 초등학교를 보내지 못할 수가 있다. Zillow 등에서 일반주택 임대를 할 수도 있으나 Co-Signing(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학생의 경우 보증이 필요 없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아파트는 대부분 전문 임대회사가 운영하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전자계약을 통하여 집을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인 윈저웨스트(Winsor West)는 맞은편에 YMCA가 있어 수영장을 이용하기 편하며 레전드 아파트(Legend)는 자체에 9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어 입주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윈저웨스트와 레전드 아파트 모두 샴페인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인근에 상업시설이 없는 것이 흠이다. 조용한 전원지역에서 새아파트에서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DI에서 같이 온 한 분은 젠트리스퀘어(Gentry Square)에서 살았는데 인근의 보튼필드(Bottenfield)은 샴페인내에서 좋은 학교 중에 하나로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사람은 여기에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인들이 Misty Cove Townhouse, Prospect Pointe Apartment, Colony West 등에 살고 있으며, 워낙 오프캠퍼스에 살아도 렌트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온 한국학생 등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Family Housing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밖에 샴페인이나 어바나 외곽으로 가면 500불 수준으로도 단독주택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치안 등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싼 가격의 아파트는 지양하는 것을 권해드린다. 학기 중에는 캠퍼스 내(Green Street 인근 식당이 밀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한두블럭 사이에 한국식당만 3~4군데가 있다.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기내내 한국식당에서만 밥을 먹었다.

##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KDI에서 미국으로 오는 많은 학생들은 가족단위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중요하다. 와이프의 경우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ESL 프로그램과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영어회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상당히 괜찮았다. 요일별로 참여할 수 있는 영어회화 세션 등은 심심할 수 있는 샴페인 생활의 자극이 되었다. 와이프는 그때 알게 된 친구들과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아이들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어도 많이 늘고 추억을 많이 쌓았다. 특히 할로윈데이 때 아이들이 초대받아서 갔던 미국인 가정에서 식사하면서 만들었던 Jack-o-lanton(호박 속을 파낸 공예품), 소박하지만 아이들 친구들을 초대해서 영화도 같이 보고 저녁을 함께했던 소소한 시간들, 추운 겨울 시카고 Waterfront를 배로 투어하면서 들었던 Architecture tour, 전세계 딱 5개만 있다는 Starbuck Reserve Roastery(시애틀,상하이,밀라노,뉴욕,도쿄,시카고)와 한국오기 직전에 들렀던 재즈의 도시 시카고 어느 골목의 작은 재즈바는 바쁜 일상에서도 나에게 여유와 기쁨을 주었다.

##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미국생활은 준비한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이 든다. KDI에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바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오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개인적으로는 전화영어를 한다던지 평소에 영어회화를 어느정도 준비를 한다면 2차년도 현지 대학생활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현지학교 생활적응에 있어서도 교수님들의 도움도 중요한 듯하다. 첫 학기 때 수업을 들었던 미국경제 관련 수업을 가르쳤던 Marc Dossuard 교수님은 KDI에서 같이 온 3명을 수업시간에 종종 Korean Contingent(한국 대표단)으로 지칭하며 한국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보셨다. 3명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단에서 와서 본인이 각자 느낀 한국경제에 대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하셨고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준 듯하다. 첫 학기 때 수업을 들었던 FangFang 교수님은 울산과기대에서 박사학위를 땀기 때문에 한국과도 특별한 인연을 가진 분이다. 첫 학기에 익숙하지 않은 GIS 프로그램을 써서 숙제를 많이 했는데 Term project 대비에 어려움을 겪으니 주말에도 본인이 정성껏 메일로 답변을 써주셔서 어려움없이 과제를 준비할 수 있었다. Mary Edwards 교수님은 외부에서 초청강사가 오면 항상 한국에서 온 현직자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수업시간에도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한번씩 얘기할 기회도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한번씩 건네는 등 정말 친절하게 대해 해 주셨다. MSSUM 과정을 담당하는 Dustin Allred 교수님은 수시로 필요한 게 없는지 메일 등을 통하여 연락을 했다. 특히 이범수 교수님은 본인이 프로그램 담당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KDI설명회부터 직접 챙기시고 평소에 시간이 나면 점심, 저녁 등을 사주시면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다. 이러한 멋진 교수님 덕분에 샴페인 아바나에서의 생활은 특별한 기억으로 내 가슴속에 남는 것 같다. UIUC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꼭 방문하고 싶은 대학이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미국생활은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다. 태어나서 지금껏 가장 치열하게 공부를 했고(학교 다닐 때 모범생은 아니었다 라는 사실

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 새로운 문화를 제대로 접하고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같이 오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본인 직장생활 커리어를 단절 시키면서도 아이들을 위하여 미국에 같이 오는 것을 동의해준 와이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코로나로 인하여 과외 등 경제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왜 지금 이순간 공부가 필요한지 스스로 느끼고 깨달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대학원 생활을 통하여 지적 호기심에 대한 충족과 더불어 정서적으로 더 나은 삶으로 이끌도록 도왔고 앞으로 직장생활이 힘들 나 자신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7.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방학기간동안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I-20에 학교 행정실로부터 서명이 필요하다.

Administrative Building은 Union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다녀올 수 있다. 샴페인에 와서 알게 된 지인 중에 한 명은 겨울에 멕시코 칸쿤을 다녀왔는데 국제선 항공편 이틀전에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급하게 학교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원하는 날짜가 담당자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국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 비자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샴페인은 미국에서 미국전체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매우 높은 몇 안 되는 도시이다. 캠퍼스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차량 없이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버스를 이용한 교통이 편리하다.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행정실에 얘기하면 학비에 포함된 버스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가족단위로 이사 온 학생들은 학생들이 많은 캠퍼스보다는 학군과 안전을 위해서도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보다는 오프 캠퍼스에 위치한 아파트 중심으로 집을 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

본인이 미국에 있을 때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해외에 나가기 엄두가 않나는 상황이어서 아쉬웠다. 내년엔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일리노이주는 캐나다까지 하루에 차로 갈 수 있는 지역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Spring Break나 Fall Break를 이용하여 캐나다를 다녀오는 것을 권해드린다. 그리고 중부지역에 위치한 어바나 샴페인은 동부의 뉴욕, 워싱턴과 가깝고 미국 3대 도시인 시카고와 인접하여 대도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개인적으로는 시카고 미술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은 미국 최고의 미술관 중의 하나로 주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박물관, 미술관 등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 시카고 워터프런트를 따라 배로 둘러보는 하는 건축투어는 한 번쯤 해보는 것을 추천 드린다.

### 8.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미국에서 대학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1년간 생활해보고 싶은 지 또는 어떤 학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학교를 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관심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자녀를 공부시키는 환경도 중요하다. KDI에 오기전에 회사에서 했던 업무가 산업단지 재개발에 대한 것이었기에 KDI에서는 공공행정학(MPP) 중에서 Concentration을 도시개발 쪽으로 정했고 미국에서는 도시계획학과로 진학을 하였다. 뉴욕이 가까운 뉴저지의 RUTGUS나 시카고가 가까운 UIUC

는 고층건물이 많은 대도시가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공부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나는 도시계획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싶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UIUC를 최종적으로 선택했다. 물론 우수한 교수진과 학교수준도 저의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

2019년 기준으로 미국내 한국 유학생은 5만 4,555명으로 이중 한국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가 UIUC이다. (총 1,182명). 그 다음으로는 2위가 UC버클리로 811명, 3위가 UCLA 608명 순이다. 일리노이 주립대에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UIUC나 미국 현지생활에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준비 잘하셔서 알찬 유학생생활을 즐기고 한국으로 돌아 오시길 바랍니다. Good Luck!!

<수강했던 과목>

No	과목명	주요내용	수강학기
1	Urban History and Theory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배우고, 인종차별, 형평성 등 미국내 사회문제 등 논의	Spring
2	GIS for Planners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리 정보 분석 및 지도제작 기법	Spring
3	Energy and the Built environment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방안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Spring
4	Economic Development Policy	토론위주의 수업으로 미국 내 지역 경제개발정책과 경제이론	Spring
5	Urban Transport & Land Use Policy	스마트성장 등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과 토지이용정책 및 이론	Fall
6	Plan Making	어바나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관련 주민참여 계획	Fall
7	Economics for planners	경제학을 이용한 도시문제 해결 방안, 토지용도, 교통 등의 이슈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방법	Fall
8	State & Local Public Finance	주정부 및 지방정부 단위의 재정 계획수립 및 개념 등을 소개	Fall